취임 1주년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MZ세대 이해가 현대사회 '포교 열쇠'



취임 이후 광폭행보를 보이며 1년의 시간을 보낸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집행부는 1년간 많은 성과를 냈지만 진우 스님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난 1년은 '광폭행보'로 표현할 수 있다. 2022년 9월 28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미래세대인 청년불자들을 만나 청년이 느끼는 불교는 어떤지 질문부터 던졌던 진우 스님. 이후 스님의 발길은 전국 사찰뿐만 아니라 종단 안팎의 기관을 비롯해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볐다.

종단 행정수장으로서의 1년.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진우 스님에게 그간의 소회와 총무원장으로서의 원력, 불교중흥을 위한 청사진을 청해 듣고자 9월 15일 총무원 청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잔잔한 미소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한 진우 스님은 "여러 사안에 집중하다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면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문을 뗐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이나 종부세 폐지, 종단 직영의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 등 성과로 꼽을 만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스님은 겸손으로 일관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덤덤한 모습. 앞서 취임 300일을 맞아 부산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여름 캠프에서도 소통의 시간을 보낸 스님은 예상보다 포교의 진척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진우 스님은 "보람을 느낀 것들이 있지만 불교가 국민적으로 호응 받고 불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진척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한 번 더 다짐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지만 자연재난이 삶의 터전을 할퀸 지역과 사회적 참사의 아픔이 서린 현장에 늘 함께했다. 종교인으로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곳곳을 찾아간 스님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더 많은 곳을 가지 못했다"고 오히려 안타까워했다. 국제적인 전쟁이나 최근의 모로코 지진 피해에 발 빠르게 성명을 낸 것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참사 현장에 누구든 함께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공존하는 사회에 이웃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 전 대규모 개각을 통해 2기 집행부를 새로 꾸린 진우 스님의 여정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총무원장 취임과 더불어 불교중흥을 위한 밑그림을 지난 1년간 그렸다면 앞으로의 3년은 색을 더해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포교 활성화, 명상 보급, 종단의 대사회활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안정된다면 그야말로 불국정토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편으로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님과의 일문일답.

Q 지난 1년간 종단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우선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가 어떠신지요.

바쁘게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안 하나하나마다 집중을 했는데 당초 구상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더 많은 걸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사안을 총무원장이 아닌 자리에서 볼 때와 총무원장 소임을 맡고 난 뒤를 비교했을 때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안목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와의 소통 시작으로
1년간 전국 누비며 '광폭행보'
"현안에 바쁜 나날 보냈지만
더 많은 성과 못내 아쉽기도"

자연재난 · 참사 현장 찾아가
함께 슬픔 나누며 위로 전해
"사회 안정이 불국정토 구현"

Q 최근에는 청년들과의 소통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 충남 공주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도 듣고, 또 인생의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청년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인상 깊으셨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종단의 과제이지요. 도제양성과 포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단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하고 소수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교의 핵심에는 청년불자들이 중요합니다. 청년세대가 불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종단의 미래가 밝아 올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성향을 중요시합니다.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가치관이 다양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여 감각적인 세대이고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런 세대에게 기존 방식으로 포교를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MZ세대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 경전과 더불어 활동적인 신행활동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있어야 합니다. 참선이나 명상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MZ세대를 자주 만나고 있는데 나름 인생이나 불교에 대하여 진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총무원장이시자 상월결사의 회주 스님이신 자승 스님께서 대학생 포교에 원력을 세워 범종단적으로 대학생전법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마땅히 종단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인데 자승 스님께서 먼저 챙겨주시고 상월결사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펼쳐나가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종단에서도 미래세대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대학생 포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생전법위원회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지원이나 신당역 사고 현장 애도 등 종단이 대사회 현안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스님께서도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종단 대사회활동의 기조는 무엇인가요?

많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참사의 현장에 누구든 함께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이웃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단의 직책을 맡다보니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슬픔의 현장을 찾아가 스님으로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로서 저의 행보가 그러한 어려운 현장의 모습에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자연 재해, 사회적 참사 그리고 개인에 의한 범죄 등 모든 것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것을 둘러싼 많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죠.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최근 국내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국제적으로 전쟁과 모로코 지진 참사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연대 활동과 함께 종단 차원에서 사회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과 치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3면에 계속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암산 백양사

